

해양수산부, '135금성호' 어선사고 상황 긴급점검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135금성호' 침몰사고 관련 상황점검 회의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금) 04시 33분경(사고 신고 접수 시간)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을 위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영상 회의에는 행안부, 국방부, 해경, 제주도, 부산시 등이 참석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구조활동과 지원 상황을 공유하였다.

강 장관은 관계기관에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들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고개요) '24.11.8.(금) 04:33경(사고 신고 접수시간),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대형선망 135금성호 침몰

* 총톤수 129톤, 부산 선적, 27명 승선

△ (05시 46분)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발령

△ (09시 00분 현재 피해현황) 27명 중 15명 구조, 12명 실종